

## 15-16세기 中央아시아 新遊牧集團들의 動向\*

— 前期 모굴汗國의 崩壞와 관련하여 —

金 浩 東

### 머 리 말

14세기 중반에 들어와 蒙古帝國의 繼承國家들은 일제히 解體·弱화되기 시작하였다. 일(II) 汗國은 1335년 아부 사이드(Abû Sa'id)가 사망한 뒤 무너져 버렸고, 차가다이(Chaghaday) 汗國은 1346년 경 東西로 분열하였다. 금장한국도 1357년 자니벡 한(Janibeg Khan)이 사망한 뒤 내분이 격화되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중국의 元帝國은 1368년 朱元璋이 이끄는 明軍에 쫓겨 漠北으로 돌아가 버렸다. 蒙古人의 世界支配가 어찌해서 거의 동일한 時期에 붕괴되었는 지에 대해서 아직 體系的인 연구는 없다. 한 학자는 1320년대부터 유라시아各地에서 발생한 旱魃·饑饉·地震·洪水·黑死病과 같은 災害와 어떠한 聯關性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蒙古 支配層 사이에서는 草原의 遊牧勢力을 再結集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차가다이 한국 영역 안의 투글룩 티무르(Tughluq Temür)에 의한 모갈汗國의 건설, 우루스 한(Urus Khan)과 토크타미시(Tokhtamish)에 의한 킵차크한국의 再建試圖 등이 그 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티무르(Temür)와 같이 遊牧民의 軍事力과 定住都市의 經濟力을 결합시키거나, 혹은 西蒙古의 에센(Esen)처럼 遊牧民의 힘에만 의존하여 蒙古帝國의 부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대규모적인 征服戰을 수반하였고, 이 전쟁은 비단 定住地域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효과적인 정복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草原民을 확고한 지배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유목사회에서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蒙古 繼承國家들의 分裂과 弱化過程이 가져온 混亂, 그리고 이를 저지하고 帝國을 再建하려는 시도들이 파생한 또 다른 전쟁들은 결국 초원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유목민들의 대대적인 이동과 기존 유목집단의 離散集散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杉山正明, 『大モンゴルの世界』(東京, 1992), p. 298.

天山北方의 중앙아시아 草原은 바로 이러한 격동의 가장 中心地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굴한국은 특히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그동안 차가다이 한국의 後裔인 모굴한국에 관해 발표한 글들을 통해 汗國을 前期와 後기로 구분하였는데, 16세기 초두에 들어와 모굴 한국의 지배층이 모굴리스탄(天山北方)을 放棄하고 망갈라이 수야(Mangalay Suyah) 즉 타림 분지의 정주지대로 이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그들의 遊牧의 習俗이 희석되면서 定住支配層으로 變身하게 된 것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굴한국은 왜 天山北方의 草原地帶를 버리고 남쪽으로 그 중심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필자는 그 이유와 관련하여 모굴한국 지배층 내부의 변화, 다시말해 定住化 傾向의 強化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천산북방에 있을 때 모굴遊牧民들의 遊牧的 習俗의 實狀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 變容過程 및 그 原因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밝혀볼 생각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는 모굴유목민으로 하여금 南下하게 한 또 다른 측면인 外的인 要因들이며, 이것은 바로 蒙古帝國의 世界支配의 終焉과 함께 시작된 격렬하고 대규모적인 유목집단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즈벡·카자흐·키르기즈의 出現과 南下였다. 이들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移住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소련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 불분명한 점들이 남아있고, 더구나 모굴 한국의 南下(즉, 前期 모굴 한국의 崩壞)와 관련해서는 아직 專論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이들 新遊牧集團<sup>2)</sup>의 出現과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나름대로 解明을 시도해 본 뒤, 이들이 중앙아시아로 남하한 뒤 모굴汗國에게 여하한 壓迫을 가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前期 모굴 한국 崩壞의 一要因을 밝혀보고자 한다.

## I. '우즈벡'의 起源과 實體

중앙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던 사마르칸드와 부하라가 1500년 칭기스한의 長子

2) 필자는 본고에서 카자흐·우즈벡·키르기즈 등에 대하여 '民族'이라는 표현 대신 '集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民族'形成의 문제를 여기서 간단히 云謂하기는 힘들지만, 이들이 처음 출현했을 때 그 名稱들은 '民族的'인 의미보다는 여전히 '政治的 歸屬'의 한 指標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어제의 '우즈벡'이 오늘의 '카자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명칭의 변경이 그 所屬民에게 일시에 '民族的 歸屬'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集團'으로서의 명칭이 '民族'으로서의 명칭으로 轉化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치(Jochi)의 후손으로 알려진 샤이바니(Shaybani)라는 인물에 의해 점령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당시 중앙아시아는 물론이지만 그 주변의 정치세력의 再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이로 인해 中亞를 거점으로 한 티무르朝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서 밀려난 티무르의 末裔 바부르(Babur)가 西北印度의 델리(Delhi)를 근거로 무갈帝國의 礎石을 놓게 되었으며, 天山東部를 근거로 했던 모굴汗國도 그 君主들이 샤이바니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생포되는 수모를 당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샤이바니의 中亞占領이 지니는 가장 큰 역사적 意義는 중앙아시아에 우즈백인들의 國家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當時 한 史家は “그(샤이바니)의 군대는 5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우즈백인들은 사방에서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듯이,<sup>3)</sup> 우즈백 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시르 나리야(Syr Darya) 북방에서 유복하던 우즈백인들이 대거 남하하여 中亞의 주민들과 雜居하게 되고 이는 결국 중앙아시아의 ‘우즈백化’라는 역사적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sup>4)</sup>

그러면 이처럼 샤이바니의 휘하에 모여들었던 ‘우즈백인들’은 누구였으며 언제 처음 출현한 것일까. 다시 말해 우즈백의 起源問題에 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깊은 관심을 보였던 과거 蘇聯學界는 다음과 같이 ‘公式的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우즈백’이라는 명칭 자체의 起源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단지 14세기 말 경 Dasht-i Kipchak(= 킵차크 草原)의 東部地域, 즉 Shibani와 Orda의 所領(ulus)에 소속된 (여기에 개별적인 Mangyt部를 포함하여) 투르크 혹은 투르크化한 部族들이 ‘우즈백’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sup>5)</sup>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즈백’이라는 名稱의 기원과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운 集團의 實體인데, 蘇聯學界의 이상과 같은 입장은 시보노프의 주장<sup>6)</sup>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명칭의 기원은 “불분명하다”는 점과 그 구성원을 킵차크 汗國의 東部 (흔히 白帳汗國 = Aq Orda라고도 불리움)로만 한정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선뜻 찬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즈백’이라는 명칭에 대해 살펴보자. 이 말

3) *A History of the Moghuls of Central Asia*, E. D. Ross tr. (1985; London, 1972 new impression), p. 120.

4) 샤이바니의 中亞占領과 관련한 상황에 관해서는 R. Grousset, *The Empire of the Steppes* (tr. by N. Walford; New Brunswick, 1970), 478ff; P. P. Ivanov, *Ocherki po istorii Srednei Azii (XVI-seredina XIX v.)* (Moskva, 1958), 46ff 참조.

5) *Istoriia Uzbekskoi SSR*, tom 1 (Tashkent, 1967), pp. 500-501.

6) A. A. Semenov, “K voprosu o proiskhozhdenii i sostave uzbekov Sheibani-khana” (*Rabochaia khronika Instituta vostokovedeniia*, t. 2, Tashkent, 1944).

은 보통 Uzbek 혹은 Uzbeg 등으로 표기되지만 이미 벨리오가 지적했듯이 ‘自身’을 의미하는 *öz*와 ‘官吏, 主人’을 의미하는 *bäg*이라는 두 개의 투르크 單語의 合成語로서, 그 뜻은 ‘自己 自身の 主人’(*maitre de [sa] personne*), 즉 ‘他人의 拘束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sup>7)</sup> 주지하듯이 ‘우즈벡’이라는 명칭은 14세기 전반(1312-1342)에 활동했던 킵차크 한국의 군주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노르스키(V.Minorsky)는 13세기 초에도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Özbek’이라는 이름을 갖는 인물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고,<sup>8)</sup> 벨리오는 이를 근거로 집단의 명칭인 ‘우즈벡’과 킵차크 한국의 군주의 이름, 이 兩者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에서 소개한 시묘노프와 蘇聯學界의 입장도 이와 동일한 판단 위에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바르폴드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미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集團名 ‘우즈벡’은 君主名 ‘우즈벡’에서 연원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9)</sup>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즈벡 집단의 출현과 관련된 史料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즈벡’이라는 말이 集團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마 Hamd Aliäh Qazvini가 저술한 *Tārīkh-i guzīda*라는 책에서 우즈벡 한의 治世中인 回曆 736년(西紀 1335년) 겨울 이란의 일(II) 汗國 領內를 침입한 킵차크 汗國의 군대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즈벡인들”(Uzbekiyân) 혹은 “우즈벡의 나라”(mamlakat-i Uzbek)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sup>10)</sup> 그러나 그가 사용한 “우즈벡인들”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새로운 民族集團의 名稱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문맥상으로 보아 “Uzbek Khan을 追從하는 사람들” 혹은 “Uzbek Khan의 支配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정도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우즈벡의 나라”와 같은 표현도 우즈벡 ‘民族’(혹은 ‘集團’)의 國家라기 보다는 차라리 우즈벡 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君主의 이름을 이용하여 地域이나 住民을 표현하는 경우가 비단 우즈벡에게만 국한된

7) *Notes sur l'histoire de la Horde d'Or* (Paris, 1949), pp. 92-94. ‘우즈벡’의 의미에 대한 벨리오의 결론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G. Vernadsky, *The Mongols and Russia* (New Haven, 1953), p. 291.

8) *Islam Ansiklopedisi*, vol. 9 (Istanbul, 1964) 가운테 “Özbek”項, p. 488.

9) V. V. Bartol'd, *Istoriia kul'turnoi zhizni Turkestana (Sochineniia, t. 2, chast' 1, Moskva, 1963에 再收)*, pp. 260-261; *Istoriia turetsko-mongol'skikh narodov (Sochineniia, t. 5, Moskva, 1968, p. 212)*; A. Iu. Iakubovskii & B. D. Grekov, *Zolotaia Orda i ee padenie* (Moskva, 1950), pp. 298-302.

10) V. Tizengauzen, *Sbornik materialov, otnosiashikhsia k istorii Zolotoi Ordy*, t. 2, p. 93.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킵차크 한국과 관련된 이슬람측 자료들을 蒐集하고 翻譯한 것으로 1권(St-Peterburg, 1884)은 아랍측 자료이고, 2권(Moskva, 1941)은 페르시아측 자료이다. 이하 *Sbornik*로 略稱한다.

것이 아넘은 Dasht-i Qipchaq를 Dasht-i Berke라고도 부르고 있는 예에서도 알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우즈벡의 治世를 설명하는 아랍사료에서도 *balad-i Uzbek* 즉 '우즈벡 地方'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sup>12)</sup> 그런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蒙古語의 *Uzbek ulus*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蒙古語에서 *ulus*라는 말이 '人民'(irgen)과 '領土'(nutuq)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런데 우즈벡 한의 死後에도 그의 이름을 援用하여 住民과 地域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 용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㉑ "776년 Rabî al-awwal月 下旬 (回曆 1374년) 우즈벡 地方(*balad Uzbek*)에 있는 무함마드, 즉 우즈벡 (汗)의 後繼인 그에게 보내는 書翰을 作成하라는 下命이 있었다."<sup>14)</sup>
- ㉒ "Qutlû Bugâ Inâq는 과거의 慣行대로 우즈벡 지방(*balad Uzbek*)의 네 명의 지배자 가운데 하나이다."<sup>15)</sup>
- ㉓ "우즈벡 지방(*balad Uzbek*)의 군주인 Mamay로부터 書翰이 도착하였다."<sup>16)</sup>
- ㉔ "(778년/1376-77년 티무르의 아들 Jahângîr가 Qamar al-Dîn을 추적하여 갔으나 적은) 도주하여 우즈벡의 地方(*wilâyat-i Uzbek*)으로 가, (거기서) Urus Khan의 保護를 받았다."<sup>17)</sup>
- ㉕ "786년 (1384-85년) 우즈벡 지방(*balad Uzbek*)의 君主인 Tokhtamish로부터 사신이 도착하였다."<sup>18)</sup>
- ㉖ "(797년/1395년 티무르의 군대가 Tokhtamish를 추적하여 Itil江을 건너면서) Urus Khan의 아들이자 당시 陛下를 모시고 있던 Qûrîchâq Oghlân에게 陛下의 軍隊에 속해 있던 한 무리의 우즈벡 勇士들 (*jam'î-yi bahâdurân-i Uzbek*)을 주고 ..."<sup>19)</sup>
- ㉗ "(1395년) 우즈벡의 모든 都邑들(*majmû'-i pâf-takht-i Uzbek*) 드높은 차카타이의 손과 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sup>20)</sup>

11) *Sbornik*, t. 1, p. 457. 베르케는 조치의 아들이자 바투의 계승자이다.

12) Tizengauzen, *Sbornik*, t. 1, p. 322, 324.

13) B. Ia. Vladimirtsov, *Obshchestvennyi stroi Mongolov: Mongol'skii kochevoi feodalizm* (Leningrad, 1934), pp. 97-98.

14) *Sbornik*, t. 1, 343-344.

15) 같은 책, p. 348.

16) 같은 책, p. 350.

17) Nizâm al-Dîn Shâmî, *Zafar-nâma* (Édition critique par Felix Tauer, tome 1, Praha, 1937), p. 71.

18) *Sbornik*, t. 1, p. 329.

19) Sharaf al-Dîn Yazdî, *Zafar-nâma*, vol. 1 (Tehran, 1957), p. 538.

20) Mu'in al-Dîn Naţanzî, *Extraits du Muntakhab al-tavarikh-i Mu'îni* (*Anonyme d'Iskandar*), publ. by J. Aubin (Tehran, 1957), p. 349.

① “누르 웃 단은 말(馬)에서 내려 우즈벡 용사들(*bahâdurân-i Uzbek*)을 칼로 치러 출정하였다.”<sup>21)</sup>

위에서 열거한 사료들 가운데 ㉔㉕㉖㉗은 킵차크 한국과 외교적 접촉을 갖던 이집트의 마물룩(Mamluk) 王朝側의 기록이고, 나머지는 킵차크 한국과 전쟁을 벌였던 티무르朝側의 기록인데, 이것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흥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처음 다섯 자료는 모두 ‘우즈벡 地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즈벡 한 치세에도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用例를 襲用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史料 ㉔㉕㉖는 이미 앞의 표현들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우즈벡 지방’ 혹은 ‘우즈벡 국가’와 같이 君主의 名稱으로서의 본래의 ‘우즈벡’의 뜻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즈벡 勇士들’·‘우즈벡의 都邑들’은 우즈벡 ‘集團’에 속하는 戰士들과 都市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가서 문제가 되는 점은 동일한 表記와 發音을 갖는, 그러나 相異한 紐앙스를 지니는 이 두 用語(君主名으로서의 ‘우즈벡’과 集團名으로서의 ‘우즈벡’)가 서로 無關한 것이냐 하는 점인데, 필자는 이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蘇聯學界에서 ‘公認’되고 있듯이 양자가 서로 무관할 뿐 아니라 集團名 ‘우즈벡’이 킵차크 한국의 동부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유한 명칭이었다고 한다면, 우즈벡 한 치세 이전에도 그러한 用例가 있었음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집단명칭 ‘우즈벡’의 출현과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그러한 用例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지 起源이 ‘불분명하다’는 것 이상으로 다른 설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Mu’in al-Dîn Naṭanzī가 자신의 著述에서 “우즈벡 (汗의) 領地”(ulus-i Uzbek), “우즈벡의 都邑들”, “우즈벡의 勇士들” 등의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래 군주의 이름이었던 ‘우즈벡’이라는 말이 그의 치세에 그의 지배를 받던 킵차크 한국의 住民과 領域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도 상당기간 같은 用途로 사용되다가, 점차 킵차크 한국에 속하는 유목민 전체를 지칭하는 ‘集團名稱’으로 변용된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실 30년에 걸친 우즈벡 한의 治世의 뒤를 이어 Tinibeg(1341-42)과 Janibeg(1342-57)이 즉위하긴 하였으나 자니 벡 사후 그의 세 아들 사이의 치열한 繼承紛爭으로 汗國은 ‘大混亂’(Velikaia Zarniatnia)라 불리울 정도의 극심한 內訌이 빚어지게 되었기 때문에,<sup>22)</sup> 우즈벡의 오랜 治世동안 굳어진 ‘우즈벡 地方’이라는 표현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용어(즉 君主名稱을 援用하여 國家와 住民을 표시할 만한)가 등장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君主名에서 集

21) 같은 책, p. 364.

22) Vernadsky, *The Mongols and Russia*, 245ff.

團名으로의 변화는 어느 시기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점진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14세기 후반 이슬람측 자료에 두 가지의 뉴앙스를 모두 내포하며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륙아시아 초원지역에서는 이처럼 君主(혹은 首領)의 이름이 집단의 이름으로 바뀌는 예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위의 ㉔의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칭기스한의 次子의 이름인 '차가다이'(Chaghaday)는 14세기 후반 서투르크스탄의 투르크인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集團名으로 바뀌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23)</sup>

그렇다면 두번 째의 문제인 '우즈벡'의 實體는 어떠한가. 필자는 이에 대해서도 킵차크 한국의 동부지역(白帳汗國)의 주민들로 국한시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白帳汗國 출신인 우루스 한이 '우즈벡 지방'의 군주로 표현된 것은 사실이나, 사료 ㉔가 보여주듯이 킵차크 한국의 서부지역을 장악하면서 우루스 한과 대립하던 權臣 Mamay도 '우즈벡 지방의 군주'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이다.<sup>24)</sup> 또한 사료 ㉔-㉕에 등장하는 토크타미시는 킵차크 한국의 동서부를 모두 통합한 인물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Natanzī는 자신의 저술에서 "조치령"(Ulus-i Jochi)과 "우즈벡령"(Ulus-i Uzbek)을 마치 동일한 것으로 混用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작성된 15세기 초두까지는 '우즈벡'이라는 명칭이 킵차크 한국 전체에 대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즈벡'이라는 集團名이 의미하는 範圍가 처음부터 동부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대로 처음에는 킵차크 한국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가 후일 카자흐스탄을 무대로 활동하던 유목민들로 국한되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냐 하는 점인데, 이것은 킵차크 한국의 최종적인 分裂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1390년대 티무르의 원정으로 인해 토크타미시의 세력이 붕괴되고 汗國의 交易據點이었던 Saray, Urgench, Astrakhan, Azov 등지는 철저히 파괴되어 동서교역을 통해 획득하던 재정수입은 중단되어 버렸고, 이미 14세기 중반이래 계속되어 온 정치적인 혼란과 겹쳐져 汗國은 더 이상 단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1445년에 카잔(Kazan)이 독립하고 1449년에는 크림리아(Crimea)가 떨어져 나갔으며 Saray(Astrakhan)에 남은 舊勢力과 함께 三汗國으로 분열되어 버렸다. 동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우루스 한의 孫子 바락크

23) *A History of the Moghuls of Central Asia*, p. 148. 이외에 중앙아시아에서 그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E. Mano, "Moghulistan" (*Acta Asiatica*, 34, Tokyo, 1978), pp. 49-52 참조.

24) Mamay의 지배영역에 대해서는 Vernadsky의 *The Mongols and Russia*, p. 246.

25) *Muntakhab al-tavârikh-i Mu'îni (Anonyme d'Iskandar)*, pp. 350, 365, 427.

(Baraq),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아불 하이르(Abû al-Khayr)가 장악하였는데, 이들의 주된 관심은 서쪽의 킵차크 한국 보다는 시르 다리아 남방의 티무르조로 향해 있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서방의 三汗國은 Muscovy나 Lithuania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종래 서방측에서 불리우던 '타타르'(Tatar)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티무르조 측의 사료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은 차라리 동방 카자흐스탄을 무대로 활동하던 유목집단이었고 그들만이 과거의 용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우즈벡'이라 불리우게 된 것이다.

## II. '카자흐'의 分離

'카자흐'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5세기 중반 경이었다. 『카자흐 共和國史』에 의하면 우즈벡 연합체의 아불 하이르 한의 지배를 받던 일군의 유목민들이 1450년대 말에서 1460년대 말에 걸쳐서 세미레치예(Semirechye)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스스로를 '카자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들이 우즈벡으로부터 이탈해 나온 이유는 "목축에 대한 세금과 징발, 그리고 봉건적인 내분과 전쟁의 끊임없는 질곡에 대한 노동(목민)들의 저항"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6)</sup> 카자흐의 이주와 관련한 다른 연구들도 대체로 遊牧社會 특유의 分權性과 '內紛'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주의 시기는 15세기 중반 경이었을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추정에도 그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된 이슬람측과 중국측 사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카자흐의 分離의 原因과 時期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分離의 年代부터 고증해 보기로 하자. 카자흐의 이주에 관해 현재까지 가장 상세한 기사를 전하고 있고 또 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라시드史』(1547년 완성)에 의하면 15세기 중반에 크게 두 차례의 이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一次는 아불 하이르 한의 치세(1428-1468) 중에 Janibeg Khan과 Girei Khan<sup>28)</sup>이 무리를 이끌고 모굴리스탄(Moghulistan)으로 이주해와 이센 부하 한(Isen Bukha Khan: 1433-1462)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고, 二次는 아불 하이르 한이 사망하고

26) *Istoriia Kazakhskoi SSR* (tom 2, Alma-Ata, 1979), p. 257.

27) P. P. Ivanov, *Ocherki po istorii Srednei Azii* (Moskva, 1958), pp. 35-36; A. E. Hudson, *Kazak Social Structure* (New Haven, 1938), pp. 12-14.

28) *Târîkh-i rashîdî* (대영도서관 소장 Or. 157, 57r)에는 "Kirâi Kha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Grousset (*The Empire of the Steppes*, 480)는 "Qarai"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Kirâi는 킵차크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Girei/Giray이며 그 어원은 12세기 몽고초원의 부족명인 Kereyid로 소급될 수 있다. 여기서는 Girei로 표기한다.



우즈벡 연합체가 와해되면서 다수의 유목민들이 먼저 이주한 집단과 합류한 것이다. 『라시드史』의 저자는 二次移住 時 “그들의 숫자는 20만명을 헤아렸고 Uzbek-Qazaq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9)</sup> 만약 그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카자흐’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二次移住 때인 셈이고, 그 시기는 아불 하이르 한이 사망한 1468년 직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一次移住는 언제 일어났는가. 중국에서 출판된 『哈薩克族簡史』는 이주의 시기를 1456년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sup>30)</sup> 여기서 『明實錄』의 기사는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즉 景泰三年(1452) 十二月 己丑條에 의하면 “賽蘭地面頭目革來檀”과 “阿思訛地面札尼訛王”이 모굴리스탄의 군주인 이센 부하(也先卜花王)과 함께 明의 朝廷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sup>31)</sup> 여기서 賽蘭과 阿思訛는 地名으로서 각각 Sairam<sup>32)</sup>과 Asparah<sup>33)</sup>으로 比定할 수 있고, 革來檀은 革來速檀의 誤記로서 Girei Sultân, 札尼訛은 Janibeg을 옮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아불 하이르 지배하의 우즈벡 연합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유목집단을 이끌던 Girei와 Janibeg이 1452년 겨울 明朝로 使臣을 보낸 것으로 보아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사이람과 아스파르 지역으로의 이주는 적어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즉 늦어도 1450년대 초두에는 一次移住가 일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明實錄』이 전해주는 또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최초로 정착한 지역이 모굴리스탄의 서부 변경인 추河 유역과 시르 다리야 상류지역이었다는 점이다.<sup>34)</sup>

그러면 이들은 무슨 이유로 우즈벡 연합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일까. ‘擄取’와 ‘內紛’이라는 막연한 내용 이외에 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을까. 앞서 언급한 『라시드史』는 “그 당시 아불 하이르 한은 Dasht-i Qipchaq를 완전히 장악하였는데, 조치(가문)의 술탄들과 다투어서, 자니벡 한과 기래이 한은 모굴리스탄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였지만,<sup>35)</sup> 이 역시 ‘내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29) *A History of the Moghuls of Central Asia*, p. 82. 물론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Hudson, *Kazakh Social Structure*, p. 13).

30) 『哈薩克族簡史』(烏魯木齊, 1987), p. 144.

31) 『明代西域史料: 明實錄抄』(京都, 1974), p. 362; 『明代哈密吐魯番資料匯編』(陳高華編, 烏魯木齊, p. 110).

32) 사이람은 시르 다리야 상류에 위치한 도시이다.

33) 阿思訛의 발음을 복원하면 aspaq/asbaq이 되지만 모굴리스탄에는 그러한 지명을 찾을 수 없고, 카자흐가 처음에 추(Chu)河 유역으로 이주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볼 때 역시 추河 유역에 위치한 Aspara가 阿思訛이 아닐까 추측된다.

34) *A History of the Moghuls*, p. 82에서는 모굴한국의 군주 이센 부하가 그들을 추河 유역의 Quzi Bashi에 安插시켰다고 하였고, 『哈薩克族簡史』(p. 145)도 이를 따르고 있다.

주지 못한다. 그런데 『라시드미』는 다른 곳에서 “(아불 하이르 한은) 조치(家門)의 몇몇 술탄(sultân)들이 반란의 의도가 있음을 눈치채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서,<sup>35)</sup> 양측의 ‘내분’이 우즈벡 연합체 내부의 覇權 掌握을 둘러싼 암투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나 추측케 한다.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우즈벡 연합체의 實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즈벡’이 원래 킵차크 한국의 군주의 이름이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킵차크 한국의 유목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그런데 14세기 후반에 바투(조치의 아들)의 후손들이 서로 치열한 계승분쟁을 벌이면서 중앙권력이 약화되자 그 동안 시베리아·카자흐스탄·시르다리야 유역 등 동부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바투의 다른 형제들, 즉 오르다(Orda)와 시반(Shiban)과 투카테뫼르(Tukha Temür)의 후손들이 汗國의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오르다의 후손인 우부스 한(Urus Khan)이 킵차크 한국을 장악하고 한국의 동부와 서부가 명실상부한 통합군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혼란’은 이것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투의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 역시 권력투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우부스 한에게 반기를 들고 티무르조에 망명하여 구원을 요청한 토흐타미시(Tokhtamish)는 바로 바투의 末弟인 투하 테뫼르(Tukha Temür)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7)</sup> 티무르의 원정과 토흐타미시의 몰락으로 킵차크 한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그 동안 잠시나마 통합되었던 汗國의 동부와 서부는 다시 분리되었고, 동부는 다시 세 개의 汗國으로 분할된 것이다. 카자흐초원을 근거로 한 동부지역의 유목민들만이 ‘우즈벡’으로 불리우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그러나 동부의 ‘우즈벡’은 결코 同質的인 유목집단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동부지역에서 원래부터 유목하던 집단들이고 다른 하나는 킵차크 한국의 분열과정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온 집단들이었다. 이들은 bii 혹은 beg라는 칭호로 불리우며 각각의 부족에 대해 독자적인 지배권을 갖던 수령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은 칭기스한의 후예 즉 ‘黃金氏族’이 아니었기 때문에 ‘黃金氏族’ 출신의 인물을 sultân이나 khan으로 내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sup>38)</sup> 이렇게 볼 때 킵차크 한국의 동서분열 이후 동부지역에 형성된 ‘우즈벡 연합체’는 그 실체가 매우 異質的인 유목집단들의 결합이며 權力은 분산되어 있었고, 각각의 수령

35) *A History of the Moghuls of Central Asia*, p.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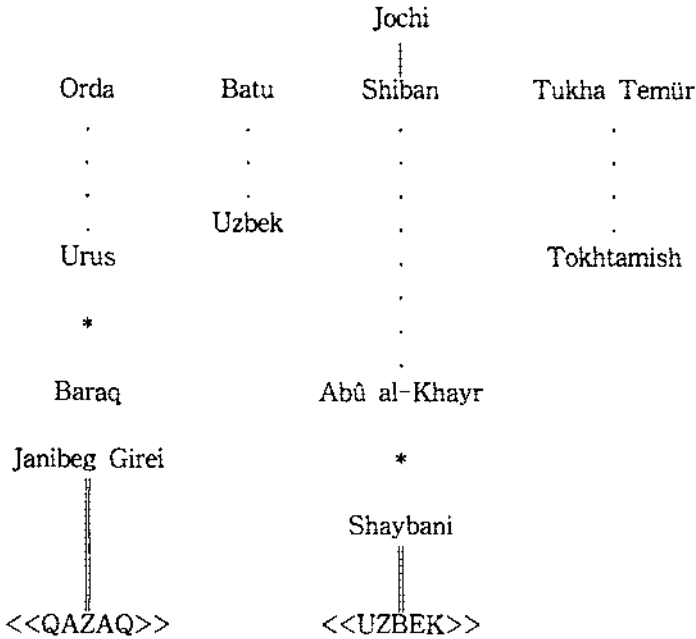
36) 같은 책, p. 272.

37) 우즈벡 연합체의 군주들의 계보에 대해서는 Vernadsky, *The Mongols and Russia*, pp. 425-431의 표를 참조하시오.

38) *Istoriia Uzbekskoi SSR*, pp. 502-503.

들이 추대한 '黃金氏族' 출신의 君主의 權威는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우루스 汗의 손자인 바라크 汗(Baraq Khan: 1425-1428)도 바로 그러한 명목적인 군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위 4년만에 수령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만 것이다.

((Jochi系 後裔들과 우즈벡·카자흐 集團))



바라크 汗의 뒤를 이어 유목수령들에 의해 추대된 인물이 바로 아불 하이르였고, 그는 바투의 동생인 시반(Shiban)의 후손이었다. 그의 권력기반 역시 처음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에 의해서 주도된 대외원정이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 그의 기반은 점차로 확고해져 갔다. 티무르조에 대한 원정이 그 좋은 예이다. 그는 1449년 티무르의 손자인 울룩 벡(Ulugh Beg)이 피살된 것을 구실로 삼아 사마르칸드를 포위하고 아부 사이드(Abū Sa'id)를 티무르조의 군주로 추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물론 많은 전리품을 갖고 귀환하였다.<sup>39)</sup> 그의 권력기반이 확고해졌음은 40년간에 걸친 그의 치세(1428-1468)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부족수령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고, 그들에게는 과거 하블 하이르에 의해 제거된 바라크 汗의 아들들, 즉 자니베크와 기레이를

39) Ivanov, *Ocherki po istorii Srednei Azii*, pp. 34-35.

내세우는 것이 가장 용이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반란의 의도'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양측의 대결에서 패배한 자니벡과 기레이는 자기를 후원한 유목집단과 함께 카자흐 초원을 떠나 동부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카자흐'라는 말이 투르크어에서 '과다, 자르다, 분리하다'를 의미하는 qazmaq에서 나온 것이며, 이 말은 "자유로운 사람" 나아가 "邊境民"을 의미하였다.<sup>40)</sup> 러시아사에 자주 언급되는 Cossack라는 명칭 역시 바로 여기서 나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심지어 우즈벡에 대해서도 '카자흐'라는 이름으로 부른 사례도 눈에 띈다.<sup>41)</sup> 위에서 양차에 걸쳐 천산북방의 추河와 탈라스河로 이주해 온 유목민들이 '우즈벡-카자흐'라고 불리웠다는 기록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카자흐'라는 말이 여전히 고유명사로 정착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사람' 혹은 '拘束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즈벡-카자흐'는 "우즈벡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후일 '카자흐'라는 고유의 집단명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5세기 후반의 중앙아시아의 정치상황의 변동 때문이었다.

1468년 아불 하이르 한이 죽자 우즈벡 연합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자니벡과 기레이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서부초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아불 하이르의 손자인 샤이바니가 서투르크스탄으로 도주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sup>42)</sup> 1470년대에 들어와 자니벡의 아들 까심 한(Qasim Khan)은 마침내 카자흐스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카자흐汗國'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 III. 키르기즈의南下

15세기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들어온 또 다른 유목집단이 키르기즈였다. 漢代

40) L. Budagov는 *Sraunitel'nyi slovar' Turetsko-tatarskikh narechii* (tom 2, St.-Peterburg, 1871, pp. 14-15)에서 "kopat', ryt', razryvat', kovyriat'" 등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 Vernadsky는 초기 러시아 연대기에서 Circassian을 두고 Kas라고 부르고 있음에 주목하여, Kas 역시 qaz-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Cherkas라는 族名도 실은 "Chahar Kas" 즉 "네 개의 Kas부족"이라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The Mongols and Russia*, p. 291).

41) Ivanov, *Ocherki po istorii Srednei Azii*, p. 39.

42) *Materialy po istorii Kazakhskikh khanstv XV-XVIII vekov* (Alma-Ata, 1969), pp. 19-20.

에 '堅昆'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집단이 있었는데, 그 발음은 ken-kwen이고 이는 아마 Qyrqyz/Qyrqyr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sup>43)</sup> 隋·唐代에 들어와 한문사료에는 契骨·結骨·黠戛斯 등으로, 투르크 비문에는 Qirgiz로 표기되었다. 이들은 劍河(Kem河, 즉 현재의 예니세이강 상류) 유역에 살면서 牧畜과 狩獵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영위하였다.<sup>44)</sup> 칭기스한의 霸業을 묘사한 『元朝秘史』에도 그들은 여전히 Kem河 유역에서 수렵생활을 하는 '森林民'(hoi-yin irgen)으로 기록되어 있고, 元代에도 謙謙州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사로 보아 그들의 住地는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그런데 15세기 후반의 정황을 설명하는 이슬람측 자료에는 그들이 이때 이미 天山北方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元朝의 崩壞(1368년)에서부터 15세기 중반에 이르는 동안에 언제인가 그들은 예니세이강 상류역에서 남하하여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셈이 되는데, 아직 학계에서는 그 정확한 시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키르기즈의 移住를 明示적으로 말해주는 자료가 없는 이상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14세기 말(1390년 경) 천산북방의 모굴유목민들에 대해 행해진 티무르의 대대적인 원정에 관한 기록에서도 '키르기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sup>46)</sup>

43) E. G. Pulleyblank, "The Chinese and Their Neighbors in Prehistoric and Early Historic Times," *The Origin of Chinese Civilization* (ed. by D. N. Keightley, Berkeley, 1983), p. 455.

44) 당시 키르기즈족의 사회경제상에 대해서는 A. Bernshtam의 *Sotsial'no-ekonomicheskii stroi orkhono-eniseiskikh Tiurok VI-VIII vekov* (Moskva, 1946), pp. 148-171과 『柯爾克孜族簡史』(烏魯木齊, 1985), pp. 33-47을 참조하시오.

45) 蒙元帝國 시기의 키르기즈에 대해서는 韓儒林的 「元代的吉利吉思及其隣近諸部」(『穹廬集』, 上海, 1982), pp. 335-372 참조. 그러나 K.I.Petrov와 같은 학자는 알타이-항가이山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나이만部가 칭기스한에 의해 격멸된 뒤 키르기즈가 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일부는 天山北方으로까지 들어감으로써 1차 이주가 시작되었고, 이어 13-14세기 하이두(Khaidu)와 후빌라이(Khubilai)와의 전쟁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격변 속에서 키르기즈인들의 2차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티무르가 모굴汗國에 대한 원정을 감행할 때 그의 침략에 저항했던 Bulghachi部는 바로 키르기즈에 속하였으며, 그 수령은 Enke Tura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키르기즈의 이동을 보여주는 확실한 文獻證據는 찾을 수 없고, 티무르에 대해 싸웠다는 Bulghachi部도 필자가 이미 밝혔듯이(『華夷譯語』의 「納門駙馬書」에 대한 再解釋, 『알타이學報』 1호, 1989, p. 27), Engke Tura는 Bulghachi部가 아니라 Erkenüt部の 수령일 뿐만 아니라, Bulghachi部가 키르기즈였다는 아무런 확증도 없다. Petrov, "Etnogenez Kirgizov i ikh dvizhenie na T'ian-shan' v XIII-XV vv." *Izvestiia Akademii Nauk Kirgizskoi SSR (SON)*, tom 2, vyp.3, pp. 59-80 참조.

키르기즈의 천산북방으로의 이주는 적어도 그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15세기 초두에서 중반에 이르는 어느 시점에 이들이 천산북방으로 옮겨 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移住는 그들의 原地인 예니세이 상류역과 천산북방을 동시에 포괄하는 어떠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일어났을 것이며, 15세기 전반 그러한 이주를 가능케 할 만한 격변이라면 결국 오이라트(Oyirad)라고 불리는 西蒙古集團의 西方과 南方으로의 팽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이라트의 强盛은 15세기 초두부터 시작되었다. 蒙古側 年代記에 의하면 1399년 蒙古의 군주인 Elbeg Khan이 위게치 하사가(Ügechi Khashagha)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東西蒙古 간의 알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그 뒤 汗權은 약화되고 서몽고에는 馬哈木(Mahmūd)·太平(Tayiping)·把秃李羅(Batu Bolod) 등의 首領에 의한 독자적인 지배가 행해졌다. 그러나 馬哈木을 이은 그의 아들 脫歡(Toghon)은 1420년대에 들어와 오이라트 전체를 통합하였고, 그의 아들 也先(Esen)이 1439년 ‘太師’(tayishi)의 지위를 계승한 뒤 오이라트의 세력은 더욱 중대되어, 남방의 哈密(Hami)·沙州·罕東·赤斤蒙古 등을 영향력 하에 두었음은 물론 서남방의 모굴汗國을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패배시켰고, 나아가 1449년에는 ‘土木堡의 變’, 즉 明의 皇帝 英宗을 生捕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脫歡에서 也先에 이르는 시기에 오이라트의 세력이 이렇게 중대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근접하여 예니세이 유역에 살던 키르기즈인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았으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수 없다.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료도 찾을 수 있다. 『明實錄』 宣德5년(1430) 五月乙未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瓦剌乞兒吉思之地方萬戶別別兒的差副千戶巴巴力等奏事至京賜彩幣表里.<sup>46)</sup>

여기서 使臣 巴巴力(Babaligh)를 보낸 別別兒(Beber)라는 인물의 官稱은 “瓦剌乞兒吉思之地方萬戶”로 되어 있다. 그런데 키르기즈(乞兒吉思)가 오이라트(瓦剌)와 連稱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양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해석한다면 別別兒는 ‘오이라트와 키르기즈 지방의 萬戶’가 되며 이는 매우 어색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오이라트(에 속한) 키르기즈 지방의 萬戶’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는 키르기즈가 오이라트 연합체의 일부분을 이루었거

46) Bartol'd, *Kirgizy: Istoricheskii ocherk (Sochineniia, tom 2, chast' 1)*, p. 513-514. 그는 키르기즈族의 形成의 母胎을 고대 천산북방의 원주민인 烏孫으로까지 소급하려는 N.A.Aristov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티무르 원정시 키르기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천산북방에 대한 티무르원정 기사는 *Matrialy po istorii Kirgizov i Kirgizii (vyp.1: Moskva, 1973)*, pp.1101-169를 참조하시오.

47) 『<<明實錄>>瓦剌資料摘編』(烏魯木齊, 1982), p. 49; 『明代西域史料』, p. 166.

나 그 지배하에 있었음이 明朝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었으며, 키르기즈의 首領 別別兒는 오이라트에 속한 한 首領의 資格으로 明에 入朝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蒙文年代記에도 보이고 있다. 사강 세첸(Saghang Sechen)이 저술한 『蒙古原流』(*Khad-un ündüsün-ü erdeni-yin tobchi*)는 오이라트 연합체를 구성하는 부족들 가운데 Kergüd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위계치 하사가가 그 수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Kergüd가 무엇 이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상이하다. 우선 1829년에 이를 최초로 獨譯한 I. J. Schmidt가 키르기즈의 別稱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나,<sup>48)</sup> 그 뒤 H. H. Howorth는 이를 Kereiud(후일의 Torghud)의 別稱이라고 보았고,<sup>49)</sup> 일본의 和田清 역시 Howorth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다.<sup>50)</sup> 그러나 P. Pelliot는 Howorth의 주장에 疑의를 표명하고 Kergüd야 말로 Kirghiz의 고대명칭인 結骨·堅昆에 보다 충실한 發音이라고 보았다.<sup>51)</sup> 최근에는 이를 Khoyid나 Kürle'üd와 연관시키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sup>52)</sup> 현재 이 Kergüd의 실체를 밝혀줄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만약 이것이 키르기즈의 別稱이었다고 한다면 키르기즈가 오이라트 연합체의 일부가 된 것은 脫歡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인 셈이 된다.

그러면 오이라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된 키르기즈인들이 언제 어떠한 經緯에 의해 天山北方으로 옮겨오게 된 것일까. 일찌기 바로뜰드는 1420년대에 오이라트의 서방으로의 팽창과 함께 天山地域의 모글한국과 전쟁을 시작할 키르기즈가 同參하여 南下하였다가 1470년대에 그러한 팽창이 중단되면서 같이 돌아가지 않고 殘留한 집단이 천산 키르기즈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53)</sup> 앞에서 밝힌대로 키르기즈가 오이라트 연합체의 일부를 구성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의 견해는 상당한 개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적극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키르기즈의 이주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 『마나스』(Manas=瑪納斯)였다.<sup>54)</sup> 『마나스』는 키르기즈族의 口傳 英雄史詩로서 최근 문자로

48) *Geschichte der Ost-Mongolen* (St.-Petersburg, 1829), pp. 56-57, 142-143, 373-374.

49) *History of the Mongols* (part 1, London, 1876), p. 558, 590.

50) 『東亞史研究(蒙古篇)』(東京, 1959), p. 211. 그가 Howorth의 주장에 영향을 크게 받았음은 그 자신도 인정하는 바이고, 나아가 위계치 하사가가 韃靼部將인 鬼力赤과 동일인물이라고 보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51) *Notes critiques d'histoire Kalmouke* (Paris, 1960), p. 6, 65.

52) 白翠琴, 『瓦剌史』(吉林教育出版社, 1991), p. 45.

53) *Kirgizy*, p. 514.

54) 『마나스』의 내용과 키르기즈의 이주를 관련시킨 최초의 학자는 Petrov였다.

採錄되면서부터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 작품은 朗誦人(*manaschi*)에 따라 그 내용과 길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지만, 최근 중국의 居素甫·瑪瑪依(Jusuf Mamai)라는 노인의 演唱이 가장 完整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모두 8部 20餘萬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이스 고대의 敍事詩 『일리아드』에 비해 무려 14배에 이르는 巨篇이다. 이 英雄史詩는 키르기즈족의 英雄 마나스의 出生·婚姻·陰謀·挫折·遠征·死亡을 주제로 한 제1부 「마나스」(13-16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를 核心으로 하여, 그 뒤 제2부에서 제8부까지(16-18세기에 형성)는 그의 일족과 후예들의 英雄的 人生을 묘사하고 있다.<sup>55)</sup>

『마나스』의 제1부 「마나스」 가운데 ‘偉大한 遠征’이라는 부분에는 Qalmaq의 ‘에센 칸’(Esen Khan)이 키르기즈가 사는 지역을 공격하여 피를 씻는 참혹한 학살을 자행하고, 이로 인해 키르기즈인들이 고향을 떠나 天山地域의 Uch Turfan으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sup>56)</sup> 바로 여기에 나오는 ‘Qalmaq’가 오이라트이고 ‘에센 칸’이 脫歡의 아들 也先(Esen Tayishi: 후일 Khan을 칭함)임을 거의 의심할 나위가 없고, 따라서 여기서 묘사된 키르기즈의 이주는 오이라트의 에센이 西方과 南方으로 진출하여 莫爾汗國·哈密王國 등을 위협하던 1440-50년대의 상황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르기즈가 예니세이 유역에서 천산 북방으로 이주한 것은 1430년대 이후 脫歡·也先 父子를 수령으로 통합된 오이라트 연합체가 중앙아시아로의 팽창과 약탈전을 감행함으로써 빚어진 격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 키르기즈는 오이라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유목부족이 피지배부족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兵力徵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은 오이라트의 中亞遠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英雄史詩 「마나스」의 내용이 말해주듯이 그러한 強壓의 조치에 반발한 일부 키르기즈의 集團的 移住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新遊牧集團과 前期 莫爾汗國의 崩壞

이상에서 14세기 중반 이후 蒙古帝國의 世界支配體制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유

그의 *Ocherki feodal'nykh otnashenii u Kirgizov*, p. 37 참조. 최근 중국에서 출간된 『柯爾克孜族簡史』(烏魯木齊, 1985), p. 65도 그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柯爾克孜族社會歷史調查』(烏魯木齊, 1987), p. 3도 참조.

55) 『마나스』에 대한 가장 최신의 연구로는 郎櫻, 『<<瑪納斯>>論析』(呼和浩特, 1991)이 있다.

56) 郎櫻, 앞의 책, pp. 35-36.



목민들의 동요와 유목집단들의 중앙아시아로의 대대적인 이주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중앙아시아를 근거로 하고 있던 차가타이 汗國의 後身인 티무르朝와 모굴汗國에게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는 논의를 모굴한국의 경우로 국한하여, 유목집단의 이주와 前期모굴汗國의 붕괴와의 相關性을 추구해 보도록 하자.

天山山脈의 南北을 근거로 하였던 모굴한국은 위에서 설명한 우즈벡·카자흐·키르기즈의 南下에 대하여 어떻게 對應했던 것일까. 우선 자니벡 한과 기레이 한이 이끄는 카자흐가 처음 우즈벡으로부터 분리되어 모굴리스탄으로 流入되어 왔을 때, 모굴한국의 군주 “이센 부하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모굴리스탄 서부변경 지역인 추허 근처의 Quzi Bashi에 安住시켜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살도록 하였다.”라는 기사<sup>57)</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센 부하 한의 시대에서부터 라시드 한('Abd al-Rashīd Khan)에 이르기까지 모굴과 카자흐는 대체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sup>58)</sup>고 하듯이 1450년대 초두 카자흐의 2차이주 시기부터 1550년대에 압둘 라시드 한의 카자흐 원정 때까지 거의 100년간 그러한 관계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모굴리스탄에 무한정한 牧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새로운 유목집단의 유입은 당연히 牧地不足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측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은 일견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후반 모굴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西隣의 티무르朝였다. 14세기 말 티무르의 계속된 원정으로 모굴한국의 領土와 住民이 커다란 피해를 받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티무르 死後에도 양측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모굴한국 내부의 계승분쟁을 기회로 삼아 1415-16년 티무르의 손자인 울룩 벡(Ulugh Beg)이 군대를 보내 카쉬가르(Kashghar)를 점령한 사건이라든가, 1421-22년 다시 그가 쉬르 무함마드(Shīr Muhammad)를 지원하여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우와이스 한(Uways Khan)을 權座에서 밀어낸 사건 등이 일어났다.<sup>59)</sup> 나아가 이센 부하가 모굴한국의 군주가 된 뒤, 티무르조의 군주 아부 사이드(Abū Sa'id)는 이센 부하와 계승분쟁을 벌이다 이라크로 망명한 유누스(Yūnus)를 다시 불러들여 군대를 지원하면서까지 이센 부하와 싸우게 하였던 것이다. 『라시드史』는 유누스가 이라크에서 돌아온 것을 回曆 860년, 즉 西紀 1455-56년의 일이라고 기록하였는데,<sup>60)</sup> 이는 자니벡과 기레이가 이끄는 카자흐 집

57) *A History of the Moghuls*, p. 82.

58) 같은 곳.

59) B. A. Akhmedov의 “Ulugbek i politicheskaja zhizn' Maverannakhra pervoi poloviny XV v.” (*Iz Istorii epokhi Ulugbeka*, Moskva, 1965), pp. 40-47.

단이 모굴리스탄 西邊으로 이주한 직후의 일인 셈이 된다. 따라서 이센 부하가 카자흐를 우대한 것이 티무르조의 지원을 받는 유누스에 대항하기 위해 同盟勢力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Mahmūd ibn Walī도 자신의 저작인 『智慧의 바다』(*Baḥr al-asrār fī manâqib al-akhiyâr*)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sup>61)</sup>

그러나 15세기 말 샤이바니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의 정세는 다시 급변하였다. 샤이바니는 아불 하이르 한의 손자로서 祖父가 죽은 뒤 벌어진 계승투쟁에서 밀려나 아스트라한 汗國과 티무르朝 등을 전전하다가 1490년대 후반 모굴 한국의 마흐무드 한(Mahmūd Khan)의 보호를 받아 투르키스탄(Turkistan)을 割讓받으면서 비로서 시르 다리야 下流域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의 근거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는 1499년 겨울 사마르칸드를 함락시키고, 곧 이어 부하라·타쉬켄트·웨르가나·카라쿨 등 中亞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는 다시 호레즘을 장악하고 1505년에는 발흐(Balkh)를 차지하고, 1507년에는 티무르조의 마지막 보루였던 헤라트(Herat)를 점령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최대의 強者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그는 비록 1510년 봄 메르브(Merv)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사파비(Safavi)라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샤 이스마일(Shâh Ismâ'îl)에게 패하여 戰死하는 운명을 맞았지만,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두에 이르는 시기에 시르 다리야 북방의 많은 우즈베크인들이 南下하여 그의 휘하에 모임으로써 그의 사후에도 서투르키스탄을 중심으로 우즈베크 계통의 국가들이 건설되게 된 礎石을 마련하였던 것이다.<sup>62)</sup>

그러나 샤이바니의 등장은 모굴한국에게 결정적인 打擊을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 샤이바니는 모굴 한국의 마흐무드 한(Mahmūd Khan)의 후원을 받는 처지에 있었고 그로 인해 샤이바니와 대립하던 카자흐가 모굴한국에 대해 敵對的인 관계를 취할 정도로 兩者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으나,<sup>63)</sup> 中亞의 주요한 도시를 점령한 샤이바니는 곧 과거 자신을 도와주었던 모굴한국에 대해 그 銳鋒을 돌렸다. 근경에 빠진 마흐무드를 도와 그의 동생인 아흐마드(Ahmad)까지 합세한 모굴군대는 1502년 경 Akhshi의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하여 두 汗은 모두 포로가 되고, 약 3만명의 모굴 유목군대는 우즈베크 군대에 편입되어 버렸다. 곧 두 사람 모두 풀려나긴 하였지만 아흐마드 한은 모굴리스탄으로 돌아간 직후인 1503-04년에 사망하

60) *A History of the Moghuls*, pp. 84-85.

61) *Materialy po istorii Kazakhskikh khanstv*, p. 352.

62) 샤이바니의 등장과 원정에 대해서는 Ivanov, *Ocherki po istorii Srednei Azii*, pp. 46-53; *Istoriia Uzbekskoi SSR*, tom 1, pp. 509-517 참조.

63) *A History of the Moghuls*, p. 119에 의하면 마흐무드 한은 샤이바니를 후원하였기 때문에 카자흐와 두 차례에 걸친 전투를 치루었다고 한다.

였고, 마호무드 한은 1508년 경 다시 샤이바니에게로 피신했다가 처형당하고 말았다.<sup>64)</sup> 그리고 아흐마드 한의 아들인 사이드(Sa'id) 역시 모굴리스탄에 머물지 못하고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sup>65)</sup> 결국 이들이 모굴리스탄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모굴한국의 군주들이 그 지역을 더 이상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모굴리스탄의 喪失, 즉 전기 모굴한국의 解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모굴리스탄에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우선 모굴한국 內部의 分裂과 對立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모굴한국의 영역은 크게 三分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汗國의 本領이라 할 수 있는 모굴리스탄(Moghulistan) 즉 천산 북방의 초원이었고, 둘째는 카쉬가리아(Kashgharia) 즉 천산 이남의 타림분지 가운데 서부 오아시스 지대였고, 셋째는 위구리스탄(Uighuristan), 즉 하미와 투르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문제는 모굴리스탄을 근거로 한 모굴군주들이 다른 두 지역에 독립한 세력의 거센 저항과 침입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예를 들어 『라시드史』는 마호무드가 샤이바니에게 생포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샤이바니에게 避身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아바 바크르(Aba Bakr)라는 인물의 약탈적 공격을 들고 있는데,<sup>66)</sup> 아바 바크르는 두글라트 部族의 수령으로서 1479-50년 경 叛亂을 일으켜 汗과 결별하고 카쉬가리아를 완전히 장악한 인물이었다. 더구나 1504년부터 위구리스탄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만수르(Manşūr)도 모굴리스탄으로 귀환한 叔父 마호무드 한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sup>67)</sup> 만수르와 마호무드와의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군사적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은 계승분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8)</sup> 마호무드가 축출된 뒤 만수르와 그의 형제들(Sa'id와 Khalīl) 사이에 다시 싸움이 벌어진 이유 역시 계승분쟁에 기인한 것이었고, 여기서 패배한 사이드와 할릴 역시 자신들이 축출한 叔父와 마찬가지로 1508년 샤이바니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모굴리스탄의 상실의 내적인 원인은 모굴한국에서 최대의 部族이던 두글라트의 반란, 그리고 汗家 내부의 격렬한 계승분쟁에 起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굴리스탄의 상실에 내적인 원인만 개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64) 같은 책, pp. 118-122.

65) 같은 책, pp. 221-226.

66) 같은 책, p. 122.

67) 같은 책, p. 182.

68) 모굴한국에 있어서 계승분쟁의 樣態에 대해서는 拙稿「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東洋史學研究』 33, 1990, pp. 63-97)을 참조하시오.

이미 사이바니의 등장 그리고 그의 군사적 압박에 의한 모굴한국의 위축을 설명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외적 요인은 키르기즈의 활동이었다. 『라시드史』의 저자는 “모굴리스탄은 우즈벡과 키르기즈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다.” 혹은 “(回曆) 916년(1510-11) 이후 앞에서 말한 이유로 인해 키르기즈는 모굴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모굴리스탄에 살 수 없게 하였다.”고 분명히 못박아 말하고 있는데,<sup>69)</sup> “앞에서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 문맥으로 보아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回曆 916년 경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인 듯한데, 키르기즈와 관련하여 그 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찾을 수 없다.<sup>70)</sup>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 914년의 일을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회력 914년(1508-09)이야말로 前期 모굴한국이 붕괴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대로 마호무드 한과 아흐마드 한이 Akhshi의 전투에서 사이바니에게 패배한 뒤 양인 모두 모굴리스탄으로 돌아왔으나, 아흐마드 한은 909년(1503-04)년에 사망하고 곧 이어 아흐마드 한의 아들들인 만수르·사이드·할릴 술탄과 마호무드 한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위의 세 형제 사이에서도 암투가 지속되었다. 『라시드史』에 의하면 이 대립은 910년에서 914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결국 마호무드가 패배하고 다시 사이바니에게로 피신했다가 처형되었으며, 곧 이어 914년 만수르가 사이드와 할릴 술탄의 연합군을 모굴리스탄의 Almatu(현재의 Alma-Ata)에서 습격하여 패배시킴으로써 사이드는 안디잔(Andijan)으로 도주하고 할릴 술탄도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sup>71)</sup>

이처럼 만수르의 최종적 승리는 回曆 914년에 완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모굴리스탄을 장악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根據地는 투르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굴한국의 군주를 상실한 모굴리스탄은 누가 차지한 것일까. 만수르와 할릴 술탄이 대립하는 동안 후자를 ‘汗’으로 추대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집단이 바로 키르기즈였다는 점<sup>72)</sup>을 생각해 볼 때, 만수르와 할릴 술탄이 모두 떠나간 모굴리스탄은 자연 그들의 수중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라시드史』의 저자가 지적한 ‘916년’은 사실 ‘914년’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모굴한국이 모굴리스탄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여러가

69) *A History of the Moghuls*, p. 148, 367.

70) 『라시드史』에서 回曆 916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으로는 사이드 한이 카불에서 2년동안 바부르(Babur)와 함께 있다가 중앙아시아로 귀환한 일이 있을 뿐이나, 키르기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A History of the Moghuls*, p. 226.

71) 같은 책, pp. 122-123, 182-183, 190-191.

72) 같은 책, p. 182.

지 要因이 介在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글라트部族의 반란이라는 汗家の 繼承紛爭과 같은 내적인 분열이 가장 중요하였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사이바니의 등장과 함께 서투르키스탄에 강력한 우즈베크 국가가 성립함으로써 그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汗國의 군주가 처형당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미 15세기 중반 이후 中亞로 남하해온 키르기즈인들에게 이미 확고한 통제권이 부재했던 모굴리스탄이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西北印度의 카블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무갈제국의 건국자 바부르의 지원을 받고 916년(1514) 중앙아시아로 돌아온 사이드에게는 키르기즈를 공격하여 모굴리스탄을 회복하던가 아니면 두글라트部族의 아바 바크르를 공격하여 카쉬가리아를 탈취하던가 양자택일의 길 밖에 없었다. 여기서 그는 後者を 택하였다. 그가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첫째 사이바니 死後 서투르키스탄에 대한 아바 바크르의 약탈적 공격이 빈번해져 우즈베크 遊牧首領들과 사이드 사이의 軍事的 聯合이 가능했다는 점과,<sup>73)</sup> 둘째로는 아바 바크르와 대립하던 두글라트部의 다른 수령들이 카쉬가리아로의 進攻을 원했으리라는 점<sup>74)</sup>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1514년 아바 바크르를 패배시키고 카쉬가리아를 점령하였고, 이로써 모굴한국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본거지 모굴리스탄은 키르기즈인들에게 상실하고 천산산맥 이남의 정주지대만을 장악하였으며, 그 가운데 西部는 사이드 한이, 東部는 만수르 한이 지배하면서 東部汗家和 西部汗家로 나뉘게 된 것이다.

## 맺 음 말

이상에서 14세기 중반 이후 舊大陸 거의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蒙古帝國의 繼承國家들이 하나씩 弱化·解體되어가는 과정에서 遊牧社會가 分裂하고 그 결과 대규모의 새로운 遊牧集團들이 출현하여 中央아시아로 南下하면서 기존에 그곳에 근거하고 있던 모굴汗國과의 聯合·衝突過程을 살펴봄으로써, 前期모굴汗國 崩壞의 한 요인을 밝혀보았는데, 주요한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즈베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集團의 出現時期와 그 實體의 문제인데,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해 기존 蘇聯學界의 通說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필자 나름의 소견을 펴려해 보았다. 즉, '우즈베크'이라는 名稱이 킵차크 한국의 君主의 이름과 무관하고 汗國 東部の 유목민들에게 고유한 (그러나 그 起源은 불분명한) 명

73) 같은 책, pp. 248-249.

74)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참조하시오.

칭에서 由來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비판하고, 이슬람측 史料에서 이같은 용어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우즈벡'이라는 말이 우즈벡 한의 生前에 킵차크 한국을 蒙古語로 지칭할 때 사용한 *Uzbek ulus*를 옮긴 말인 *mamlakat-i Uzbek* 혹은 *balad-i Uzbek* 등의 표현으로 처음 나타났다가 그가 죽은 뒤에도 慣習적으로 일정기간 襲用되었는데,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킵차크 한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면서 서부의 세력들은 이슬람권과의 접촉이 소원해짐에 따라 러시아나 東歐에 '타타르'(Tatar)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불 하이르 한의 지배를 받게 된 동부의 카자흐스탄 초원을 중심으로 한 유목민들만이 티무르朝側의 자료에 '우즈벡'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벡'이라 불리운 集團의 實體도 처음에는 킵차크 한국의 유목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가 후일 동부지역 주민으로 한정된 것이지, 처음부터 동부지역(소위 白帳汗國)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우즈벡'에서 다시 떨어져 나온 '카자흐'의 이주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450년대 말에서 1460년대 말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 이상 자세한 사정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明實錄』의 記事를 통해 적어도 1452년 겨울 이전에는 자니백(札尼白)과 기레이(革來)가 이끄는 카자흐 집단이 사이람(賽蘭 = Sairam)과 아스파라(阿思蘭 = Asparah), 즉 추河 流域과 시르河 下流域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우즈벡으로부터 分離하여 이주한 원인이 汗位를 둘러싼 내부의 繼承紛爭에 있었으며, 이 분쟁에는 칭기스한의 長子인 조치의 아들인 오르다·시반·투하 테위르 등의 후손들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키르기즈의 南下原因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15세기 중반경 西蒙古 즉 오이라트의 등장과 중앙아시아로의 팽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사실을 더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1430년도의 明側의 資料에 '瓦剌乞兒吉思之地方萬戶'라는 표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키르기즈가 오이라트 연합체의 일부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이라트의 '壓迫'과 '攻擊'을 피해 中亞로 내려왔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일찌기 바르톨트지가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오이라트의 中亞遠征軍에 '參與'하여 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中亞로 南下한 新游牧集團들과 그전부터 天山北方에서 살던 모굴汗國의 游牧民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카자흐가 처음 이주했을 때 모굴汗國의 군주인 이센 부하가 그들과 友好的인 관계를 맺은 까닭이 티무르朝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15세기 말 샤이바니의 출현으로 우즈벡 세력이 결집되어 서투르크스탄을 장악한 뒤 모굴汗國과의 사이에 벌어진 전쟁, 우즈벡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동요되기 시작한 모굴 지배층의 권위가 繼承

산북방의 '모굴리스탄'을 키르기즈인들에게 상실했는가를 설명하였다.

'民族移動'은 內陸아시아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이었다. 특정 集團의 개별적인 移動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連鎖反應을 일으키며 그 영향이 草原地域 뿐 아니라 定住地帶에 미쳤다. 그러한 이동은 각각의 지역의 民族構成은 물론 그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급격한 굴절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要因이 되었다. 大規模 移動의 原因도 自然環境的인 요인 이외에도 政治的·經濟的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었다. 본고가 다루었던 15-16세기 新遊牧集團의 出現과 移動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여기서 드러난 이동의 원인은 기존 政治秩序의 動搖(우즈벡), 내적인 권력투쟁(카자흐), 다른 유목집단으로부터의 壓迫(키르기즈) 등으로 지적될 수 있고, 그러한 이동의 결과는 內陸아시아의 기존 政治秩序를 변화시켜 티무르朝와 前期 모굴汗國의 崩壞를 가져왔고, 나아가 현재 중앙아시아의 民族的 分布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 Migrations of Nomadic Peoples in the 15–16th Century Central Asia and the Collapse of the Former Moghul Khanate

Kim, Ho-dong

Around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the successor states of the Mongol empire, having dominated most of the known parts of the Old World except for marginal regions like Western Europe and Japan, began to be disintegrated. This process delivered profound impacts upon the steppe nomads and they, who had been checked by powerful Mongol overlords, now started to form great and small political groups and to move southward filling the power vacuum left by the dissolution of the Mongol hegemon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thes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contributed to the downfall of the Former Moghul Khante in Central Asia.

First of all, this paper tries to clarify when the group called 'Uzbek' was formed and what their identity w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slamic sources in some detail, the present writer argued that the term 'Uzbek' at first had designated the whole nomads belonging to the Kipchak Khanate and that only later its meaning was changed to include only the eastern part of the Khanate, what is called by scholars as the "White Horde".

As for the Kazakhs, it has been generally known that they were branched out of the Uzbeks sometime between the end of the 1450s and the end of the 1460s, and the lack of detailed reports has not allowed us to define more exact date. However, the present writer, based on a report in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Ming Dynasty*, could assert the fact that two



groups, led by Janibeg and Girei, had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Uzbeks and reached the places called Sairam and Asparah at least before the winter of 1492.

This article did not propose a new hypothesis on the migration of the Kirgiz due to the lack of pertinent sources. Nonetheless, it suggests that the Kirgiz might have been a part of the Oirat confederation since a Ming source mentions in the 1430s about "a Myriad in Oirat-Kirgiz Country". This phrase seems to support the argument of V. V. Bartol'd who believed that the Kirgiz came to the T'ian-shan range not fleeing from the Oirats but joining the Oirat expeditions.

Finally, the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se newly immigrated nomadic peoples and the Moghuls who had been living in the northern borders of the T'ian-shan long before their arrival. It examined the war between the Uzbeks, who were united under the leadership of Shaybani Khan, and the Moghuls, and the weakening of the Moghuls in the wake of the defeat from that war and the ensuing succession struggles within the ruling circle. As a result, it became evident that all these external changes and internal dissensions led to the Moghuls' loss of the Moghulistan (north of the T'ian-shan), which means the downfall of the Former Moghul Khanate.